

보 도 해 명 자 료

(18.5.8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남북 접경지에 ‘평화발전소’ 건설 추진”
(5.8, 경향신문)

1. 기사내용

- ☐ 정부, 북한 전력난 해소 위한 ‘중장기 협력방안’ 수립
 - 접경지역 및 북한지역내 신재생에너지 및 화력 발전소 건설 등 발전설비 중심의 협력방안 추진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☐ 동 기사내용은 동서발전이 남북경협 여건이 충족되었을 때를 대비하여, 아이디어 차원에서 자체 검토한 자료임
- ☐ 정부는 동 내용을 검토하거나 동서발전과 협의한 적이 없으며,
 - ‘전력 분야 중장기 협력방안’을 수립한 바도 없음

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최우석 과장 (044-203-5240)
권순목 사무관(044-203-5242)
권용균 사무관(044-203-5254)